

소박하지만 짙은 골목길 문화향기

광주지역 가 볼만한 문화이벤트

함께 음악을 듣고, 철학을 공부하고, 영화도 감상한다. 거창하게 격식을 차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소박함이 매력으로 다가온다. 헌책방, 카페 등 소박한 공간에서 만나는 문화 행사들은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광주 지역의 가볼 만한 문화 이벤트를 소개한다.



■ 아이숲 도서관
도서관 엄마학교·원작 영화보기

◇문화가 흐르는 헌책방 '아낌 없이 주는 나무'
(재)아름다운 가게 광주·전남 본부가 또 다른 '나눔의 문화'를 위해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문을 연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들어서면 '깜짝' 놀라게 된다. '헌책방'에 대한 모든 고정 관념을 깨트린 공간이기 때문이다.
탁 트인 통유리창이 인상적인 40여평의 공간은 아기가 자하게 꾸며져 있다. 공간 구석구석 세심한 손길이 묻어나는 인테리어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이곳은 헌책방이면서 북카페이기도 하다. '착한 소비'로 불리는 공정무역 커피를 마실 수 있고, 구매도 가능하다. 카페라테, 등 각종 커피와 생과일 주스, 미숫가루 등 다양한 음료는 1천 500원~2천원 수준의 '착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또 페비닐 등으로 만든 재활용 상품 '메아리'를 구입할 수 있는 코너도 있다.
무엇보다 책장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진열된 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감시(?)'를 철저히 해야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집에 있는 책을 가져와 기부하고, 또 필요한 책을 사 가기도 한다. 가장 많은 건 아동용 도서다. 가장 저렴한 책은 500원이고, 보통 책 원가의 60~70%에 구입할 수 있다. 잘만 고르면 LP음반과 CD도 내 것이 된다.

'아낌 없이 주는 나무'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 중이다. 매주 마지막주 목요일에는 '나만의 책 만들기'가 열린다. 달력 등 페이지를 활용해 책표지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다. 또 화가 주홍씨가 스토리텔링 미술 치료 프로그램 '컬러플 마인드'(매주 수요일)도 열고 있다. 그밖에 광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와 함께 진행하는 '블랙북북 영화제' 역시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이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10시 30분 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연다. 문의 062-514-8975.

◇다양한 주제의 영상음악회 여는 '베토벤'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클래식음악감상실 '베토벤'은 예전 모습 그대로 언제나 그곳에 있다. 낡은 의자와 LP는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다. '베토벤'은 1주일 내내 다양한 음악감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클래식 마니아 안철씨와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은 장르가 다양하다.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화요영상음악회'는 클래식 음악을 '재대로' 즐길 수 있는 기회다. 매달 특정 작곡가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감상하는 시간으로 3월에는 생일을 맞은 바하의 음악을, 4월에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함께 듣는다.

또 6월과 7월에는 탄생 200주년과 150주년을 맞은 슈만과 말러의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토요일음악감상회'는 매월 격주로 열린다. 3~4월에는 '돈 조반니'와 '라 트라비아타' 등 오페라 영화를 상영하고, 이어 히치콕 스릴러 시리즈, 유럽 예술영화 시리즈 등을 만날 수

있다.
토요일에는 또 태양의 서커스가 선보이는 '살롱방코', 마티스의 예술세계를 만날 수 있는 '헨리 마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특별감상회도 준비돼 있다.
올해는 또 매주 금요일 광주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발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모든 감상회 프로그램은 클래식 음악 마니아 안철씨가 맡고 있다.
'베토벤'은 철학강좌도 진행한다. 성진기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매주 월요일(오후 7시20분)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함께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문의 062-222-8410.

◇책읽기 프로그램 등 '아이숲어린이도서관'
광주에서 가장 먼저 생긴 비영리 민간 어린이도서관인 아이숲에서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빛그림 제작과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는 '빛그림 동아리' '동화 읽는 엄마 모임', '청소년 독서모임' 등 다양한 동아리가 활동 중이다.
도서관에서는 '날마다 오후 4시 책 읽어주기' '도서관 엄마 학교', '큰 그림책 보기', '원작과 해설이 있는 영화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쉴 새 없이 돌아간다.

현재 진행 중인 '도서관 엄마학교'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좌에는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오혜자 상임이사 와 동화 '나는 진짜 나일까?'의 저자 최유정씨 등이 강연한다
cafe.daum.net/totolibrary. 문의 062-652-1279

◇가곡 향기 흐르는 '티 브라운'
광주 호남신화대 안에 자리잡은 카페 '티브라운'은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입소문이 많이 난 공간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무등산 풍경은 일품,
'티브라운'은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는 아름다운 가곡이 흐르는 공간으로 변신한다. 아름다운 노랫말과 멜로디에 반해 '우리 가곡 부르기'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우리가곡 부르기'(회장 황선숙 cafe.daum.net/gjkrong)의 정기 모임이 열리기 때문이다.

인터넷 가곡 사이트 '내 마음의 노래'를 통해 인연을 맺은 이들이 꾸린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는 모임 때마다 화창 시절 교과서 배웠던 추억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우리말의 보물창고인 아름다운 '시'에 가락을 부친 '신작 가곡'을 배우는 시간도 갖는다. 또 회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기량을 뽐내기도 한다. 지금까지 모두 18차례 행사를 진행했고 오는 4월 9일 열리는 19회 가곡부르기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김소정 작곡가의 노래를 배우보는 시간을 갖는다.

회비 1만원을 내면 누구나 차를 나누며 가곡 부르기에 참여할 수 있다. 광주우리가곡부르기 017- 601-227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음악감상실 '베토벤' 낡은 의자·LP, 30년 흔적속 클래식 음악여행



■ 헌책방 '아낌없이 주는 나무' 공정무역 커피 마시며 각종 문화행사 즐기기



■ 카페 '티 브라운' 무등산 풍경 바라보며 함께 노래 배우고 부르고

"저희도 불안하다... 하지만 이 때가 온통 불안하다..."

힘겨운 구조물 복원 및 연약지반 보강공법의 신개념!!

파괴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극대역에 적합한 피복소 복원성형 등 최적 공법

- 1. 구조물-기초 연결**
 - 보강콘크리트-기초 연결 공법
 - 보강콘크리트-기초 연결 공법
 - 보강콘크리트-기초 연결 공법
- 2. 연약지반 보강**
 - 연약지반 보강 공법
 - 연약지반 보강 공법
 - 연약지반 보강 공법
- 3. 구조물-연약지반 연결**
 - 구조물-연약지반 연결 공법
 - 구조물-연약지반 연결 공법
 - 구조물-연약지반 연결 공법

한국연접니에엔지니어링
www.kjengr.com
010-5103-4004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문제 해결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영부모와 당신의 '모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 1. 부동산 문제 해결**
 - 부동산 문제 해결 공법
 - 부동산 문제 해결 공법
 - 부동산 문제 해결 공법
- 2. 부동산 문제 해결**
 - 부동산 문제 해결 공법
 - 부동산 문제 해결 공법
 - 부동산 문제 해결 공법
- 3. 부동산 문제 해결**
 - 부동산 문제 해결 공법
 - 부동산 문제 해결 공법
 - 부동산 문제 해결 공법

010-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